

한국의과대학에서의 의료윤리교육현황 분석

맹광호*

1. 머리말

의료윤리교육이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즉, 가톨릭의과대학이 1980년에 처음으로 의학과 4학년 1학기 교육과정에 ‘의학윤리’라는 이름의 교과목을 개설하고¹⁾ 연세의과대학이 1986년부터 역시 의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의료윤리’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²⁾.

이 후로 각 의과대학들이 서서히 의료윤리 교육을 단독 또는 통합 형태의 정규과목으로 채택해 왔으며 특히 199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의학계열 대학평가 항목 중에 의료윤리를 포함한 인문사회계열 과목 교육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해서 1990년에는 31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이, 다시 1993년에는 32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의료윤리 과목을 개설했으며, 1996년에 발간된 한국의과대학장 협회회의 「의과대학 교육현황」 제9집에 의하면 당시 37개 의과대학 중 20개 대학이 의료윤리 또는 관련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³⁾.

한국의과대학들에서의 이 같은 의료윤리 교과목 개설은 이미 1970년대부터 많은 의과대학들에서 학생들에게 의료윤리교육을 실시해 온 미국⁴⁾에 비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의과대학들에서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의료가 본질적으로 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교육 과정에 윤리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이 점차 강해지는데도 이유가 있지만⁵⁾, 요즘은 그 보다 역시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들이 진료활동 중에 경험하게 되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 맹광호. “의대에서의 의학윤리교육의 필요성”. 『한국의학교육』 1990 : 67-70.

2) 손명세. “의과대학 윤리교육의 과제와 전망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윤리·교육』 1998 : 46-58. 이 논문에 의하면, 연세의대에서는 이 보다 먼저 1982년에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김일순·포선교수의 편역서 <의료윤리>를 가지고 몇 년간 의학과 4학년 예방의학과 지역사회의학실습 시간에 의료윤리에 관한 토론시간을 가진 바 있음.

3)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의과대학 교육현황』 1990 : 67-70.

4) Fox E, Arnold RM, Brody B. "Medical ethics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Acad Med 1995 : 761-769.

5) Pellegrino ED, Thomasma DC. "The Virtues in Medical Practice". Newe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여러 가지 윤리적 갈등상황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⁶⁾. 즉, 인공수정이나 태아감별기술, 그리고 생명연장을 위한 중환자 치료 기술 등 새로운 의료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인간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의사들의 간섭이 불가피해지고 제한된 의료자원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의료수요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환자들의 기대와 건강권 의식 때문에도 의사들은 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능력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행위의 일반적 윤리적 원칙을 비롯해서 구체적 행위의 윤리성 여부 판단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물론, 의과대학에서의 윤리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7),8)} 그렇다고 이런 교육을 대신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윤리교육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의과대학생들이나 이미 의료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분석한 평가연구들에 의하면 역시 의과대학에서의 윤리교육은 임상실습 과정이나 실제 진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9),10),11)}.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런 의료윤리교육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많지 않지만 최근 한 대학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의료윤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통해 보다 더 의료현실을 이해하게 되고 의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이해도 깊게 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¹²⁾.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서 모든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주장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윤리교육 내용과 방법을 이제 어떻게 향상시키느냐를 토론해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¹³⁾.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의과대학에서의 윤리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동안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에서의 윤리교육 실태는 한국 의과대학장 협의회가 2년마다 발간하는 「의과대학교육현황」집의 기재내용을 통해서 파악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저자는 41개 국내 모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료윤리 강좌 개설여부와 강좌형태, 그리고 강좌단원 내용 등 몇 가지 중요한 관련 정보를 직접 조사해서 분석해 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했다.

6) Baylis F, Downie J. "Undergraduate medical ethics education - A Survey of Canadian Medical Schools". Westminster Institute for Ethics and Human Values. Ontario, 1990 : 1-10

7) Sider R, Clements C. "Medical ethics assault on medical values". JAMA 1984 : 2791-2795

8) Sevales J. "Medical ethics: Some reservations". J Med Ethics 1987 : 117-119

9) Kelaney B, Kean L. "Attitudes of medical students to the teaching of medical ethics". Med Edu 1988 : 22 : 8-10

10) Howe KR. "Medical students' evaluation of different levels of medical ethics teaching: implications for curricula". Med Edu 1987 : 340-349

11) Self DJ, Wolinsky FC, Baldwin DC. "The effect of teaching medical ethics on medical students' moral reasoning". Acad Med 1989 : 755-759

12) 전기홍, 송미숙. "의료윤리교과목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한국의학교육」 1977 : 129-138

13) 맹광호. "의과대학에서의 윤리교육 - 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 ". 「의료·윤리·교육」 1998 : 71-82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전국 41개 의과대학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각 대학 의료윤리 교육담당자 또는 본 연구자가 직접 접촉 가능한 해당 대학 교수에게 설문지를 보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동안 41개 대학 모두에서 조사지가 회신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대학의 형태(공·사립여부)와 설립연대, 입학정원 등 대학의 일반특성을 포함해서 의료윤리강좌 개설 여부, 강좌형태, 강좌실시학년, 총 강좌시간, 학점부여 여부 및 학점 수, 강좌 담당교수 수, 그리고 강좌주요 단원명과 교재 종류 등이었다.

자료 분석은 주로 대학 일반특성에 따른 각 조사문항 분포에 대한 χ^2 -검정으로 하였으며 해당사항 모두를 기재하도록 한 강좌단원명과 사용하는 교재에 관한 분석은 단원별, 교재별 빈도 순위를 계산하였다.

3. 연구결과

1) 연구대상 대학의 일반적 특성분포

연구대상 41개 의과대학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대학의 형태는 국립대학이 10개, 사립대학이 31개였으며 1980년을 기준으로 본 대학 설립연대별 분포는 1980년 이전이 19개 대학, 1981년 이후가 22개였다. 한편 입학정원별 한 학년규모 분포를 보면 99명 이하가 27개 대학이었고 100명 이상인 대학이 14개였다(표 1 또는 표2 참조).

2) 대학의 일반특성별 의료윤리강좌 형태 및 실시학년 분포

표1은 연구대상 41개 의과대학의 일반특성별 의료윤리 강좌형태 및 강좌실시 학년분포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은 어떤 형태로든지 의료윤리를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중 37개 대학(90.2%)이 독립된 정규과목으로, 3개 대학(7.4%)이 특강이나 통합강의 형식으로, 1개 대학(2.4%)이 세미나 형식으로 의료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런 강좌형태 분포는 대학의 형태나 설립연대, 그리고 입학정원 크기별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사립대학보다는 국립대학에서, 1981년 이후 설립된 대학보다는 1980년 이전에 설립된 대학에서, 그리고 입학정원이 99명 이하인 대학보다는 100명 이상인 대학에서 의료윤리를 단독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비율이 좀더 높았다.

한편, 의료윤리과목 개설 학년의 경우 대부분 대학이 1개 학년에 의료윤리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나 3개 대학은 2개 학년 이상에서 이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전체 41개 대학 중 16개 대학(39.0%)이 의학과 3학년에 의료윤리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의예과 2학년과 의학과 2학년에 개설한 대학이 12개씩(29.3%)이었고 그 다음이 의학과 4학년에 개설한 10개 대학(24.4%) 순이었다. 3개 대학은 의예과 1학년에 의료윤리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는데 이들 대학의 일반적 특성별로 보면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들보다, 1981년 이후 설립된 대학들이 그 이전에 설립된 대학들보다, 그리고 입학정원이 99명 이하인 대학일수록 고학년에 의료윤리 과목을 개설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는 아니

었다.

3) 대학의 일반특성별 의료윤리 강좌시간, 학점 및 담당교수 수 분포

표2는 조사대상에서의 의료윤리 강좌시간, 학점 및 담당교수 수 분포를 대학의 일반적 특성별로 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의료윤리 과목을 위한 교육시간은 전체 41개 의과대학 중 가장 많은 16개 대학(39.0%)이 총 11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의료윤리과목에 배정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13개 대학(31.7%)이 21시간에서 40시간을 배정하고 있는 등 전체 대상대학의 70.7%가 11시간에서 40시간 사이를 의료윤리 교육에 배정하고 있었다.

10시간 이하를 의료윤리 관련 과목에 배정하고 있는 대학도 4군데(9.8%) 있었으며 반면 총 61시간 이상을 의료윤리 과목에 배정하고 있는 대학도 2군데(4.9%) 있었다.

41개 의과대학의 평균 의료윤리관련 과목 교육시간은 29.7 ± 24.1 시간이었고 범위는 5시간에서 136시간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대상대학 일반적 특성별로 보면 사립보다는 국립이, 1980년 이전에 설립된 대학보다는 1981년 이후에 설립된 대학이, 그리고 입학정원이 99명 이하인 대학이 의료윤리 교육에 배정하는 시간이 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의료윤리 강좌에 대한 대상대학들의 학점부여 현황을 보면 전체 대학 중 약 절반인 20개 대학(48.8%)이 0.5 또는 1.0학점을 의료윤리 과목에 부여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12개 대학(29.3%)이 1.5학점에서 3.0학점 미만을 부여하고 있었다. 반면, 3.0학점 이상을 의료윤리 과목에 부여하고 있는 대학도 3개 대학이 있었으며 6개 대학은 의료윤리에 별도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패스/페일(P/F)로 하거나 다른 내용의 교과목과 통합해서 학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41개 대학이 의료윤리 과목에 부여하고 있는 평균학점 수는 1.6 ± 1.4 학점이었고 범위는 0에서 8학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대상대학 일반적 특성별로 보면 의료윤리에 대해 학점부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사립대학보다 국립대학에서 설립역사가 짧은 대학에서 그리고 학급 규모가 작은 대학에서 더 많았다.

전체 학점부여 분포를 볼 때 학급규모가 100명 이상인 대학이 99명 이하인 대학들보다 다소 유의하게 ($P=0.0529$) 많은 학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윤리 담당교수 분포에서 보면 5명 이상 교수가 참여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이 21개(51.2%)로 절반 정도였고 다음은 2-4명이 참여하는 대학이 15개(36.6%)였으며 1명이 의료윤리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도 5개(12.4%) 있었다.

특이한 일은 1명의 교수가 의료윤리를 담당하는 대학은 모두 사립대학이고 1981년 이후 설립된 대학, 그리고 학급규모가 99명 이하인 대학이었다.

그러나 대학 일반특성별 의료윤리 담당교수 수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4) 의과대학 의료윤리 강좌 단위내용 분포 순위

표3은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의료윤리 강좌의 단위내용 분포 순위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의료윤리 과목단

원은 '윤리개념'이었으며 39개 대학(95.1%)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다음은 인공유산이나 인공수정 등 '생식의학 관련윤리'로 37개 대학(91.2%)이 이를 다루고 있었다.

3위는 '윤리원칙'과 '의사-환자관계 윤리', 그리고 임종환자 진료나 안락사 등 '사망관련 의료윤리'로 36개 대학(87.8%)이 이들 단원을 취급하고 있었다.

그 외 '연구윤리'를 30개 대학(73.2%)이, 소아환자나 정신과 환자 같은 '특수 환자 진료와 관련된 윤리'를 27개 대학(65.9%)이, 그리고 '의사단체의 윤리강령'을 22개 대학(53.7%)에서 의료윤리 강좌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10개 대학(25.4%)에서는 기타 '특정종교와 의료윤리', '법 윤리', '의사와 다른 의료직 종사자들과의 관계' 등을 하나의 단원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들 가운데 24개 대학(58.5%)은 의료윤리 교재를 대학에서 자체로 만들거나 강좌담당 교수가 스스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19개 대학(46.3%)은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가 발간한 '의료윤리학'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11개 대학(26.8%)은 다른 의료윤리 관련 교재를 학회발행 교재나 기타 교수자신이 만든 강의 교재 등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타 합동강의 교재나 세미나 자료로 만들어 사용하는 대학도 4개(9.8%) 있었다.

4. 고찰

본 조사연구결과, 2003년 1학기 현재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 모두가 의료윤리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모든 의과대학들에서 의료윤리를 포함한 인문사회계열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과¹⁴⁾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의학계열 대학평가와 200년부터 실시된 한국 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의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¹⁵⁾ 가운데 이 분야 교육의 적절성 여부 평가가 포함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들 41개 의과대학 중 37개 대학(90.2%)이 의료윤리를 독립된 단독 정규교과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미국 12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1999년과 2000년 사이의 의료윤리 교육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¹⁶⁾에서 설문응답한 87개 의과대학 중 84%의 대학이 의료윤리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대학들이 이를 선택과목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크게 다른 점인데, 이 같은 차이는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생들에게 비교적 선택과목의 폭이 넓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이 대체로 의학과 2학년이나 3학년, 또는 4학년에서 한 학기동안 평균 30시간 정도의 의료윤리 강좌를 마련함으로써 한 학기동안 1내지 2학점 정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 개 대학은 의예과

14)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hysicia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osition paper from the AAMC, Washington, D.C., 1984

15)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 의과대학 인정평가기준. 서울, 2000

16)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hysicia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osition paper from the AAMC, Washington, D.C., 1984

과정에 철학이나 일반윤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의학과 상급학년에서 실제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한 의료윤리를 교육하는 등 매우 이상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51%의 대학이 1개 학년에서만 의료윤리를 교육하고 있으며 26.5% 대학이 1학년에서, 14.3% 대학이 2학년에서 의료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의학과 3학년 및 4학년에서 의료윤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은 각각 8.2%와 2.0%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미국의과대학들의 경우 의학과 1학년 때부터 임상-기초 통합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학과 3, 4학년 때는 임상실습에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일은 미국의 경우 30%의 대학이 2년에 걸쳐서, 10% 대학이 3년에 걸쳐서 의료윤리를 필수 또는 선택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2%의 대학은 4년 내내 의료윤리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윤리 강좌에 대한 학점부여 여부도 우리나라는 85.4%의 대학이 이를 학점화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절반을 조금 넘는 55% 대학만이 학점을 부여할 뿐 나머지 대학들은 출석이나 리포트 정도로 통과여부를 판단하는 등 매우 유연하게 의료윤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평가를 통한 학점부여는 의료윤리 교육에도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¹⁷⁾.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절반 이상인 21개 대학에서 5명 이상의 교수들이 의료윤리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 15개 대학에서도 2명 이상 4명의 교수가 의료윤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역시 의료윤리에서 다루는 단원별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내과나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그리고 정신과 같은 여러 분야 의사들이 교류 참여해서 실제 이들 임상상황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의료윤리 교육의 내용을 단원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고 있는데, 90% 이상의 대상 대학이 '윤리개념'과 '생식관련 의료윤리 문제'를 주요 단원으로 다루고 있으며 기타 '윤리원칙'과 '의사-환자관계',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윤리문제'를 41개 대학 중 36개 대학(87.8%)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이 윤리와 의료윤리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함께 주로 생명의 시작과 끝에 관련된 의료행위의 윤리문제와 의사-환자관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DuBois와 Burkemper에 의한 최근 미국에서의 의과대학 의료윤리 교육내용 분석 결과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와 '의료서비스 전달(health care delivery)'이 각각 84.5%와 74.9%의 대학에서 중요한 의료윤리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환자의 비밀유지와 개별성 존중(confidentiality and privacy)'와 '높은 질의 치료제공(provision of quality treatment)'가 각각 67.2%의 대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적잖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교된다.

17) Miles SH, Lane LW, Bickel J, et al. "Medical ethics: coming of age." Acad. Med 1989 : 705-714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윤리개념’이나 ‘의료윤리원칙’ 등이 미국에서는 40% 미만의 의과대학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사망관련윤리(death and dying)’나 ‘환자-의사 관계(patient-physician relationship)’도 각각 65%와 50%의 대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차이는 미국의 경우 의사와 환자관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사례 중심보다 원론적인 윤리문제 논의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Beauchamp과 Childress가 집필한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¹⁸⁾나 미국의사협회가 발간한 Principles of Medical Ethics¹⁹⁾ 같은 책들이 의료윤리 관련 권장도서로 가장 많이 추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윤리개념과 윤리원칙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41개 의과대학들 가운데 24개 대학이 자체 개발한 교재나 강의록을 사용해서 의료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개 대학이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에서 발간한 의료윤리교재 <의료윤리학>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바, 2000년에 발간한 <의료윤리학>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이 교재가 윤리의 개념이나 의료윤리 원칙, 그리고 의료윤리 역사 등 총론적인 부분은 물론 출생 및 사망관련 의료기술의 윤리나 의사-환자 관계 및 의사-다른 의료직종간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각론적인 내용들을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교수나 학생 모두 사용이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에서의 의료윤리교육 실태를 그 형태나 내용, 그리고 실시 학년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국한해서 조사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의 의료윤리교육 현실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을 할 수 없었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윤리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나 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행 의료윤리 교육의 문제점과 의료윤리 교육의 효과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윤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더욱 더 개선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에서의 의료윤리 교육실태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2003년 5월 1일부터 10일간 전국 41개 의과대학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된 것이다.

41개 의과대학 모두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41개 의과대학 모두 의료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 중 37개 대학(90.2%)이 이를 독립된 단독 정규과목으로, 3개 대학이 합동강의 또는 특강형식으로 나머지 1개 대학이 세미나 형식으로 의료윤리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런 강좌형태 분포는 국·사립여부나 1980년 기준 대학설립연대, 그리고 100명 기준

18) Beauchamp JL, Childress J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4th ed. New York, 1994

19)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From: Options and Reports of the Judicial Council. 1980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다.

2. 조사대상 41개 의과대학 중 33개 대학(80/5%)이 1개 학년에 의료윤리 강좌를 개설하고 있었으며 8개 대학이 2개 학년 이상에서 이 강좌를 개설하고 있었다. 한편 의예과 2년을 포함해서 총 6년 의학교육 과정 중 5개 학년에 걸쳐 의료윤리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도 2개 있었다.

전체적으로 의료윤리 강좌는 의학과 3학년과 2학년, 그리고 의예과 2학년에 가장 많이 개설하고 있었다.

3. 우리나라 의과대학 41개 중 70%가 넘는 29개 대학이 총 11시간에서 40시간 정도를 의료윤리 교육에 배정하고 있었으며 0.5학점 이상 3학점 미만의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22개 대학으로 절반을 넘었다.

41개 의과대학의 평균 의료윤리 강좌시간은 29.7 ± 24.6 시간이었고(범위:5-136), 평균학점은 1.6 ± 1.4 학점(범위: 0-8)이었다.

4. 우리나라 의과대학 의료윤리 강좌내용 중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 주제는 '윤리개념'이었고 다음이 '생식관련 기술윤리', 그리고 '의료윤리원칙', '의사-환자관계' 및 '죽음관련 의료행위윤리' 순이었다.

각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자체개발 교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가 발간한 <의료윤리학>이었다.

색인어 : 의과대학, 의료윤리교육, 교육과정



=Abstract=

Ethics Education in Korean Medical Schools

Kwang-ho Meng*

Ever since two Christian medical schools, one Catholic and one protestant began teaching medical ethics to the students as a regular teaching subject in early 1980s, number of medical schools adopting the medical ethics course has been steadily increased as the importance of teaching medical ethics in medical schools has been stressed in various literatures.

However, few data exist describing current practices in medical ethics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how many medical schools are including ethics education in their curricula and analyze the pattern of ethics education by the type of school, years founded and the class size of the medical schools.

Major finding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ll 41 medical schools in Korea were providing ethics course; as a regular course subject in 37 medical schools and as an integrated/special lectures in the rest 4 medical schools.

2. Thirty three medical schools(80.5%) reported teaching ethics in one year only and the rest 8 medical schools reported teaching ethics in more than 2 years. Two medical schools were providing the courses in 5 years.

Sixteen medical schools(39.0%) reported providing the courses in the third year of medical course and 12 medical schools(29.3%), in the second year of medical course or in the second year of pre-medical course.

3. Mean number of hours for ethics teaching in 41 medical schools was 29.7 ± 24.1 (range: 5-136), and the mean number of credits was 1.6 ± 1.4 (range: 0-8).

4. Most common content areas taught in Korean medical schools were 'ethical concept'(in 39 medical schools), 'reproductive ethics' and (in 37 medical schools), and 'ethical principles', 'dr-patient relationship', and 'death and dying ethics' (in 36 medical schools).

Twenty four medical schools(58.5%) were using course materials developed by the schools themselves or faculties, but 19 medical schools(46.3%) were using the textbook developed based on students learning objectives and published by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Eleven medical schools(26.8%) were combining other textbooks on medical ethics.

Keywords : Ethics education, Korean medical schools, content areas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